

#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Life Satisfaction of the Poor-health Elderly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윤종희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부교수 김덕성·안령미

Dept. of Family Welfare &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

*Professor* : Yoon, Chong-Hee

Dept. of Health Science, Dongduk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s* : Kim, Duk Sung · Ahn, Ryoung Mi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poor health conditions, their self esteem, health and financial status,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participati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interview 228 elderly who were randomly selected from Sungbuk-ku, Seoul.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poor-health elderly were self esteem, relationships with their adult children, perceived financial status, relationships with grandchildren, and the amount of allowances in that order.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9% of life satisfaction of the sample.

**주제어(Key Words):** 거동불편 노인(poor-health elderly), 생활 만족도(Life Satisfaction)

## I. 서론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1970년대에 3.4%에서 30년 만인 2000년에는 두 배 이상인 7.1%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듯이(보건복지부, 1999) 계속 증가 추세이며, 그 증가 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뚜렷해지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 집단에 대한 복지시설, 부양 부담, 건강 및 의료 보호, 복지 정책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및 노인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해서는 1960년대 서구에서 활동이론 대 유리이론의 가설 검증에 이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게,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시작한 8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특정변수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1995년도 이후 수행된 연구들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도 개별 변수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 탐색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의 모형 안에서 상대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된 선행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재돈, 1997; 손화희, 1999; 손화희 외, 2000; 윤중희·이혜경, 1997; 이형하, 2000).

더욱이 노인이 처한 개별적인 생활 조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동일한 변수일지라도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시설노인(김은혜, 1997; 장숙아, 1997; 최영관, 1999), 복지 수혜 대상 노인(박선영, 1999; 손화희, 1999), 농촌노인(김지훈, 1997; 서말희·유가효, 1999), 배우자 사별 노인(전길양·김정옥, 2000),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윤중희 외, 1997) 등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개별 독립 변수들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은 극히 소수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손화희 외, 2000; 홍선경, 1995)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경향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가 간과한 면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즉,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의 노인들에게 동일한 관련 변수가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지 규명된다면 여러 집단의 노인들에게 공통적·기초적 이익과 욕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노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와 특히 상호 영향력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상대적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들을 거동 불편 노인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한 설명력을 지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자아 존중감(손화희, 1999), 가족 관계(전길양의, 2000), 건강 상태(김경애 1998), 경제 상태(한임섭, 1987), 사회활동 참여도(조진호, 2000), 종교, 직업, 자녀 동거 여부, 동거 자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부분을 연구 변수로 선정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소외감,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가족관계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많은 연구가 보고한 바, 누군가의 시중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변인이라고 생각되어 연구 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사회활동 참여도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변수로 선정하였고, 경제상태와 용돈 정도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인 자아 존중감, 성인 자녀와 손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 지각된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용돈정도,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개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예: 연령, 교육 수준, 지각된 경제 상태, 용돈 정도, 종교, 자녀 동거여부, 동거자녀)에 따라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

-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거동불편 노인의 자아 존중감, 건강 상태, 사회활동 참여도, 가족관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생활만족도

노인의 연령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략 두 부류로 요약된다. 즉, 연령과 생활 만족도 간의 부적 상관관계인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Cutler, 1979)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종단적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Palmore & Kivett, 박충선 1990 재인용)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고승덕, 1995). 종교 유무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승덕 1995)는 것과 이와 반대로 종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장상희, 1984)는 것이다.

경제상태와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한임섭, 1987). 그러나 접근 관점에 따라 다른 변인의 매개효과를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 즉, 높은 수입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가져와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는 하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적·절대적인 경제상태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여유로움과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다(박충선, 1990; 윤종희 외, 1997).

자녀와 동거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는 동거 노인의 적응수준이 높다는 정적 상관과(박충선,

1990) 영향이 없다는 연구(김종숙, 1987)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어느 자녀와 동거하느냐(김영태, 1998)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령, 교육 수준, 종교, 경제 상태, 자녀와 동거 여부, 동거 자녀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노년기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도, 가족관계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간에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손화희 외, 2000; 윤종희 외, 1997)와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의 관점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 소외감, 노후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아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이다(Krause, 1987). 두 부류의 선행 연구 모두 자아존중감과 노인의 심리적 손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하여 거동불편노인의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과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건강상태: 노인의 건강상태를 변수로 채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박충선, 1990). 노인에게 건강은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강은 노인의 생활전반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좌우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생활 만족도와 연관지었을 때,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도 주관적인 지각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사회활동 참여도: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Chapman & Beulet, 1983; 윤종희 외, 1997).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일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김경식, 1996; 안재근, 1996; 이성철, 1996; 임은미, 2000), 지역 사회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단기적인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진호, 2000)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함을 볼 때 노인이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활동과 그들의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 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연구한 논문 중에서 가족관계를 변수로 다룬 연구는 상당히 많다. 이 연구들에서 가족관계는 가족 내 유대관계, 결속력, 정서적·도구적 기능, 자녀의 효 태도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었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작화 되어도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부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한국 노인들의 가치체계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관계를 변수로 다룬 많은 연구에서(김경식, 1996; 김경애, 1998; 김영태, 1998; 김은혜, 1997; 김재돈, 1997; 김지훈, 1997; 김태현 외, 1999; 박선영, 1999; 서말희 외, 1999; 손화희, 1999; 손화희 외, 2000; 송주은, 1993; 신효식, 1993; 안재근, 1996; 원영희, 1995; 윤종희 외, 1997; 이성철, 1996; 이형하, 2000; 임은미, 2000; 장숙아, 1997; 전길양 외, 2000; 조병은, 1990; 최영관, 1999; 홍선경, 1995) 가족 관계가 우리나라 노인의 심리적 만족과 안정, 주관적 안녕감 및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발견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연구 내용 중에는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 일치 등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힌 연구들이 많아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안에서 조부모 역할에 긍정적으로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

도가 높았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는 연구들도 다수 있다(Kornhaber, 1985; 윤종희 외,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동 불편 노인들의 자녀와 손자녀 관계 모두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한 변수들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으나, 이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상기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모집단인 서울시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체계적 확률 표집법에 의해 228명이 선정되었다. 선정 절차는 먼저, 성북구 전체 30개 동 행정지구 색인에 근거하여 체계적 확률 표집법에 의해 돈암 2동, 삼선 1동, 안암동, 장위 2동, 정릉 3동을 선정하여 이 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전체 명단을 구청으로부터 확보하였다. 훈련받은 면접조사원들이 5개 동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1차 방문하여 방문 시 부재중인 노인을 제외한 1380 명을 직접 면접하여 이들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up>1)</sup> 척도에서 한 항목이라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노인 228명을 선정하였다. 면접원들은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 및 구조

1) 거동불편노인의 선정기준은 성북구 보건 진료소와 협의한 결과이며, 이 척도의 15 개 문항은 의, 식생활, 개인 위생, 이동 등의 기본적인 생활영역에서 '도움없이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없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도움없이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노인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고, 한 항목이라도 '할 수 없다'는 노인은 시중을 요하는 거동 불편 노인이라 분류하였다.

적 면접법에 대한 훈련과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예비교육을 거친 가정복지, 보건관리 전공 대학생 15명이다. 면접은 1999. 9. 6.-11. 26. 사이에 이루어졌다.

## 2. 측정도구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1999년 보건복지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사무국에서 발행한 건강 문제 가구원과 65세 이상인 자를 위한 가족건강 기록부내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Activities of Daily Living)를 사용하였다. 건강기록부는 성북구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Cronbach's  $\alpha = .930$ ).

생활만족도: 생활 만족도는 Medley의 도구에 기초한 김종숙(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개 문항으로서 2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척도는 8개 문항으로 현재 생활에 대한 느낌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중에서 택하게 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섞여 있다. 두 번째 척도는 '대체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이다'까지 5단계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Cronbach's  $\alpha = .83$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 Esteem Inventory(SE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형 척도에 총 10문항이며 측정 범위는 10-40점이다(Cronbach's  $\alpha = .79$ ).

가족관계: 성인자녀관계의 측정은 송주은(1993)의 노부모-자녀 유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4점 리커트 형이다. 측정범위는 6~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대관계가 높다 (Cronbach's  $\alpha = .73$ ). 손자녀 관계는 박루미(1988)의 조부모-손자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형 척도에 총 7문항이며, 측정범위는 7~28점이다(Cronbach's  $\alpha = .756$ ).

사회활동 참여도: 사회활동 참여도는 홍순혜(1984), Lemon(1972)의 연구에 근거하여 작성된 6개 항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공식적(친척, 친구, 이

웃), 공식적(종교, 친목단체) 활동에 참여, 봉사, 노인정, 노인대학에 참가, 그리고 혼자 하는 취미생활의 빈도를 0점(전혀 없다)에서 7점(거의 매일)사이로 측정, 측정 범위는 0-42점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경제상태, 용돈정도, 종교유무, 자녀동거 여부, 동거 자녀의 8개 요인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s  $\alpha$ , 일원분산분석, Scheffe-test,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는 할머니가 73.7%로, 26.3%인 할아버지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연령은 60세에서 83세 사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71세 이상이 전체의 70.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38.4%, 무학 37.9%, 중학교 졸업 19.2%, 대학교 졸업 이상 4.5%의 순이었으며 대부분인 76.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경제상태는 자신이 지각한 경제상태와 실제 용돈 액수로 나누었는데, 자신이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48.9%가 '약간 부족하다,' '알맞다' 33.5%, '상당히 부족하다' 12.8%, '여유 있음'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인 61.7%의 응답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용돈은 5만원 이하가 54.3%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69.3%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 불교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7.6%, 카톨릭교 12.0%의 순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65.8%이었고, 함께 사는 자녀는 '장남부부' 35.6%, '독신자녀' 14.1%, '차남부부' 7.9%, 기타 42.4%이었다.

15항목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중 조사대상자

가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항목은 운동(62.6%), 계단오르기(58.8%), 대중교통이용(48.1%), 외출(42.0%)의 순이었다. 반면, 옷 벗고 입기(9.2%), 전화기 사용(11.5%), 식사(12.2%) 등의 항목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노인이 비교적 적었다.

## 2.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 실태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자아 존중감 평균은 26.7점(SD=3.18)으로 중간수준이었다. 가족관계는 성인자녀관계와 손자녀 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먼저 노부모-성인자녀관계의 평균점수는 16.3점(SD=2.43)이며 6점에서 23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평균점수는 19.5점(SD=3.08)이며 7점에서 27점에 분포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간 유대관계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평균은 13.7점(SD=4.59)으로 이것은 일년에 몇 번 참여하는 정도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생활만족도 평균은 2.72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분포는 1.52-4점 사이이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문제 1〉 성북구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경제상태, 용돈정도, 종교, 자녀 동거여부, 동거자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지각한 경제상태와 용돈 정도이었다. 경제상태를 '여유 있다'라고 느끼는 집단이 '부족하다', '알맞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F=10.08, p<.001$ ). 그리고 용돈정도가 '6만원 이상'인 집단이 용돈이 '없다'와 '1만원 ~5만원' 수준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

았다( $F=3.46, p<.001$ ).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 동거여부 그리고 동거자녀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이 지각한 경제상태와 용돈의 영향은 받으나,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그리고 현재 자녀들과 함께 사는지, 혹은 자녀들 중 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도, 가족관계와 생활만족도

〈연구문제 2〉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M(SD)	F	Scheffe test	
연령	60~65세	2.50( .56)	1.58	
	66~70세	2.78( .62)		
	71~75세	2.68( .58)		
	76세 이상	2.80( .49)		
교육 수준	무학	2.65( .49)	1.40	
	초등학교	2.71( .59)		
	중고등학교	2.87( .60)		
	대학교이상	2.73( .72)		
경제 상태	상당히 부족	2.26( .56)	10.08***	A
	약간 부족	2.72( .55)		A
	알맞음	2.83( .51)		A
	여유 있음	3.12( .49)		B
용돈 정도	없다	2.65( .50)	3.46***	A
	1만원~5만원	2.52( .62)		A
	6만원~10만원	2.94( .60)		B
	11만원~20만원	2.95( .57)		B
	21만원 이상	2.74( .55)		B
종교	있다	2.71( .58)	t=.41	
	없다	2.74( .54)		
동거 여부	동거	2.71( .57)	t=.06	
	비동거	2.71( .54)		
동거 자녀	장남부부	2.75( .52)	.78	
	차남부부	2.82( .68)		
	독신자녀	2.59( .55)		
	기타	2.68( .59)		

\*  $p<.05$  \*\*  $p<.01$  \*\*\*  $p<.001$

〈표 2〉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도, 가족관계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M(SD)	F	Scheffe test	
자아존중감	.499** (상관계수)			
건강 상태	매우 좋음	3.52*	A	
	좋은 편임			
	나쁜 편임			B
	매우 나쁨			B
사회 활동 참여도	상(29-42)	2.58		
	중(15-28)			
	하( 0-14)			
가족 관계	노부모-자녀 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			

\* p<.05 \*\*\* p<.001

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사회활동참여도, 가족관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상관)이 있었다( $r=.499, p<.001$ ).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52, p<.05$ ). 같은 거동불편 노인들이라도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느끼는 집단은 '나쁜 편'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느끼는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종교활동, 노인정 활동, 동창회, 계, 친목회 활동,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친족, 종친회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성인자녀와 손자녀 관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가족관계는 전자는 정적 상관( $r=.151, p<.05$ ), 후자는 상관(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 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거동 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5.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요인 분석

〈연구문제 3〉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표 3〉 생활만족도에 관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구 분	B	$\beta$
연령	.006	.071
교육수준	.002	.003
지각한 경제상태	.127	.175**
용돈정도	.001	.139*
종교(있다=1)	-.088	-.073
지각한 건강상태	.036	.036
사회활동참여도	.009	.073
노부모-성인자녀관계	.037	.230***
조부모-손자녀관계	.043	.146*
동거여부(동거=0)	.039	.032
자아존중감	.080	.466***
Intercept		-.052
Adj R <sup>2</sup>		.390
F		12.22***

\* p<.05 \*\* p<.01 \*\*\* p<.001

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을 하나의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분석전 변수들간의 다중 공선성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은 성북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 결과로 이 모형이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39%( $R^2=.390, F=12.22, p<.001$ )의 설명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총 11개의 독립변인 가운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자아 존중감( $\beta=.466, p<.00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성인자녀관계( $\beta=.230, p<.001$ ), 노인이 지각한 경제상태( $\beta=.175, p<.01$ ), 조부모-손자녀관계( $\beta=.146, p<.05$ ), 용돈 정도( $\beta=.139, p<.05$ )의 순이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와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경제상태가 여유 있다고 지각할수록, 조부모로서 손자녀와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거동 불편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거동불편노

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인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도, 가족관계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예: 연령, 교육수준, 지각한 경제상태, 용돈정도, 종교유무, 자녀동거 여부, 동거자녀)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실제로 자료 분석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변수는 자아존중감, 노부모-성인 자녀관계, 노인이 지각한 경제상태, 조부모-손자녀 관계, 용돈 액수이었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서술된 순서와 같다. 한편,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나타난 변수가 상당수 있다. 독립 변수 중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 동거여부, 동거자녀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의 중요성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거동불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심리적 측면인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진행된 몇 편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노년기 삶의 질이 객관적·물질적 상황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되는 주관적 차원의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결과와 일치한다(김태현 외 1998, 1999; 손화희, 1999; 손화희 외, 2000; 윤중희 외, 1997). 거동불편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신체적 기능의 수행 정도나 활동의 자립 수준보다는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라는 성격특성이 그들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거동불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가족관계임이 밝혀졌다. 이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김태현 외(1998, 1999), 손화희(1999), 원영희(1995), 윤중희 외(1997), 조병은(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이미 논의하였던 우리 나라 노인의 가치체계에서 가족 유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사회변화로 인하여 노부모 부양이식이 아무리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족 중심적인 우리 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거동불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세 번째로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경제요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객관적 경제상태 모두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불편 노인이 지각한 경제상태 및 실제 용돈 액수와 생활 만족도 간의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경제적인 복지가 노인 복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론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와 같은 실천가, 그리고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제도를 고안하는 정책 입안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요약하면, 노인 자신이 처한 환경조건이 어떠한지라도 그 상황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인 자아 존중감이 결국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및 경제 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어떠한 형태로든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한 연구,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거동불편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자아 존중감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교육을 하는 방안, 가족원들과 애정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시도되어야 하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첫째,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변화에 직면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건강을 잃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과제 수행능력은 더욱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ADL측정치에서도 많은 거동불편노인이 운동, 계단오르기, 대중교통이용, 외출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점을 볼 때, 노화로 인해 저하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재가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동불편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체계는 특히 재가복지 및 지역 복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봉사원제도, 가정방문간호사제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건의된다. 재가 복지 서비스 실시 시, 이웃 및 지역사회 주민의 활용은 거동불편노인과의 친밀도, 공동 관심사,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동불편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식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으로 가족이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 및 손자녀와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거동불편노인의 경제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생계비 수준을 기초 생계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 분야의 최저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급여를 확충하고, 연금제도, 노인 할인제도, 노인 수당의 도입과 같은 복지 정책과, 거동불편노인일자리라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공식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모든 노인들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던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다루어 이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한 점과, 일반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거동불편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39%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모형으로 농어촌, 저소득층, 독거 노인 등 특수 집단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시도되어 동일한 관련 변수가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지 규명하는 본 연구에서

와 같은 노력이 지속된다면, 여러 집단 노인들의 공통적·기초적 이익과 욕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노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 여가만족, 생활만족. 서울대석사논문.

김경애(1998).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김영태(1998).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아들 가정과 딸 가정 거주 노인의 비교. 동국대 석사논문.

김은혜(1997). 양로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김종숙(1987). 한국 노인의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김지훈(1997). 농촌 단독가구노인의 성인자녀관계와 생활만족도. 서울대 석사논문.

김재돈(199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산대 박사논문.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I. 한국노년학, 18(1), 150-169.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II. 한국노년학, 19(1), 61-81.

박루미(1988). 노년기 역할변화에 따른 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박선영(199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보건복지부(1999).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보고.

서말희, 유가효(1999). 대구 근교 농촌 노인의 생활

-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7(12), 29-41.
- 손화희(1999).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고려대 박사논문*.
- 손화희, 윤종희, 김덕성, 안령미(2000). 거동불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20(1), 93-112.
- 송주은(199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탐색. *한양대 박사논문*.
- 안재근(1996).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생활 만족도. *교원대 석사논문*.
-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윤종희, 이혜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83-103.
-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 이형하(2000).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 석사논문*.
- 임은미(2000). 노인의 생활체육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장상희(1984).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시를 대상으로. *부산대 사회조사연구*, 2(1).
- 장숙아(1997). 사회적 지지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전길양, 김정옥(2000). 배우자 사별 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8(1), 155-170.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조진호(2000). 지역복지관의 노인건강 프로그램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최영관(1999).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 대전광역시 소재 시설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한입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홍선경(1995). 퇴행성관절염 노인의 유연성운동과 온열요법이 통증과 일상활동장애 정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논문*.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서울대 석사논문*.
- Champman, N. J. & M. Beulet. (1983).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Risk Older Adults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30(2), 237-244.
- Cutler, N. E. (1979). Age Variation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 96-100.
- Kornhaber, A. (1985). Grand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Journal of Gerontology*, 40, 151-158.
-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375-382.
- Lemon, B. W.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